

# 교회소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부의 코비드 제한 정책 해지에 따라 예배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가 해  
 제되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생일: 이제희(4/30)

2. 3월 이근권 목사님 사역지원금 \$390(뱅크버지구촌교회 감사목장 \$240,  
 다탈머스한인교회 \$150) 지급해 드렸습니다.

3. 다음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성금요일 금식기도회 8시

4.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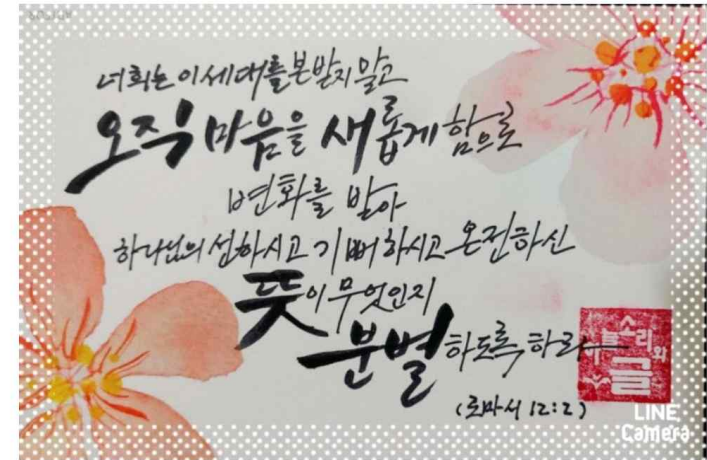
5. 4월 17일 부활절 감사 특별예배: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상자를 준비하려  
 고 합니다.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6. E-transfer 헌금 안내:

NAME: Dartmouth Korean Church notify recipient by Email  
 email: dartmouthkoreanchurch@gmail.com phone:9027463566  
 Security Question: Our Savior Security answer: Jesus

##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탈머스 한인교회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210	1,2,27,33,51	
감사 헌금	CD \$20	1,2	
십일조	CD \$180	2,8	
특별 헌금	CD \$240	52(감사목장)	
기타 헌금	CD \$36.3	중등부빈병모이기	
장년 출석	6	어린이 출석	9



구분	항목	전년도 이월	1월	2월	3월	합계
구제	월별수입	100	100	100	100	300
	수입누계	100	200	300	400	400
	월별지출	-	-	-	300	300
	지출누계	-	-	-	300	300
잔액		100	200	300	100	100
선교	월별수입	100	100	100	100	300
	수입누계	100	200	300	400	400
	월별지출	-	-	-	-	-
	지출누계	-	-	-	-	-
잔액		100	200	300	400	400
음향	월별수입	763	50	50	50	150
	수입누계	763	813	863	913	913
	월별지출	-	-	-	-	-
	지출누계	-	-	-	-	-
잔액		763	813	863	913	913
구제, 선교, 음향 잔액		963	1,213	1,463	1,413	1,413

		2022년 3월						
구분	항목	6-Mar	13-Mar	20-Mar	27-Mar	0-Jan	Mar	합계
수입	헌금							
	주일헌금	55.00	45.00	40.00	210.00	-	-	350.00
	감사헌금	40.00	20.00	40.00	20.00	-	-	120.00
	십일조	80.00	150.00	300.00	180.00	-	-	710.00
	절기	-	-	-	-	-	-	-
	특별	-	200.00	-	240.00	-	-	440.00
	기타	-	300.00	-	36.30	-	-	336.30
	소계	175.00	715.00	380.00	686.30	-	-	1,956.30
이월		3,509.73						3,509.73
소계		3,684.73	715.00	380.00	686.30	-	-	5,466.03
지출	예배	-	-	-	50.00	-	-	50.00
	선교	-	500.00	-	100.00	-	-	600.00
	교육	-	-	-	-	-	-	-
	사무	-	-	-	-	-	-	-
	케어	22.98	1,010.77	63.13	122.92	-	-	1,219.80
	재정1	-	-	-	-	-	-	-
	재정2	219.29	-	-	-	-	-	219.29
	재정3	-	-	-	300.00	-	-	300.00
	미확정	-	-	-	-	-	-	-
	소계		242.27	1,510.77	63.13	572.92	-	-
								3,076.94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홈페이지: [www.dartmouth-k-church.com](http://www.dartmouth-k-church.com)

예배 안내: 주일예배 2:00PM 본당

어린이교회 1:00PM 본당 청소년교회 9:00PM 토 (ZOOM)

담임목사: 김승용 902-746-3566, dartmouthkoreanchurch@gmail.com

# 사순절 다섯번째 주일 예배 순서

여는기도		김승용목사
사도신경		다함께
찬 양		다함께
성경봉독	롬 12:1-2	다함께
설 교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김승용목사
결단찬양		다함께
헌 금		다함께
교회소식		김승용목사
축 도		김승용목사

## 로마서 12:1-2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1)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목회자 칼럼

흔히 급격한 회심의 대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을 들어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스테반 집사의 순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뀌는 놀라운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의 변화가 워낙 극단적이기에 다메섹 이전과 이후의 사도 바울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들어 자신의 가치관과 성격이 확고해진 이후에는 변화를 맞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익숙하고 자신이 추구하던 것들을 일순간에 내려놓고 미지의 영역으로 변화를 맞이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교육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나이를 15세 아래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만 변화를 기회를 주시지 않고 성년이 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변화를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수 많은 어른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동안 일평생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있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노력과 친척, 재력 등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길로 나서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어부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그는 물고기 잡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던 시골의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익숙하고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가 아니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랍비로서 이미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기성세대의 대표이자 기득권자에 속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와 의 깊은 대화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 만남으로 조금씩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급격하게 변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조금씩 변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분명한 제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 변화에 순응하고 나서는 용기와 결단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은 갈라진 요단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강을 강로 밟아 멈추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닌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익숙하고 편하고 그동안 추구해 오던 가치관은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따르는 한 걸음이 필요합니다.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참 특별한 경험입니다. 익숙한 고향 나라를 떠나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그 곳의 질서와 가치관을 배워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주는 낯섬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적응해가는 시간이 지나 어느 듯 낯선 곳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익숙한 곳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든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해 나가는 이유는 어떻게든 이곳에 속한 자로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정체성과 방향성에 순응해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될 우리의 새로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신실하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베드로도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좇았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자신이 죽이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죽이는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변화를 시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으시는 선한 역사가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성령의 손길을 받아들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내려놓을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